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차밭 빛 축제장’ 겨울 정취 느끼려는 인파로 가득

누적 관광객 10만 명 육박...1일 1만 명 이상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지난 14일 시작한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가 누적 관광객 10만 명을 육박하며 연말연시 관광객이 사랑받는 남도의 대표축제의 위상을 당당하게 뽐내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빛의 낭만으로 물든 빛 축제장에서 겨울 정취를 즐기려는 구름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20명의 산

타가 나타나 관광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아름 선사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은 25일 기준으로 9만 3776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방문한 10만 명을 10일 만에 경신했다.

축제기간 민송이 차 꽃이 피어있는 겨울왕국에서는 매일 밤 인공눈이 내려 겨울 정취를 한껏 살리고

주말과 크리스마스에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에어볼 스텀에서는 ‘빛 관련 체험과 ‘소망카드’ 작성으로 축제의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조명쇼와 신나는 음악이 만나 환상의 앙상블을 뽐내는 특수조명 쇼는 댄스가 있는 야외 클럽 분위기를 연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는 현장접수와 전화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전국 각지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사랑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체적인 구성이 완성됐다.

군 관계자는 “빛 축제장 근교에는 휴식의 공간 율포해수욕장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득량만 신소낙시공원 등 온 가족이 함께 휴식과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며 보성여행을 적극 추천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총력

피해목 발생지·집단피해지역 모두베기 실시, 방역활동에 만전



광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멈추는 내년 3월까지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한다.

광양지역에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1읍5면5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인헬기를 활용해 발생지 300ha와 진환경제배 인접지 240ha 등에 3에 걸쳐 방제를 실시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빈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멈추는 11월부터 소나무류 생육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나 집단지 형태의 피해목 발생지 및 집단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모두베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 주인이 등의 할 경우 전액 시비를 지원해 모두베기 대상지에 조립사업을 추진하고 눈에 쉽게 띄는 도로변 주변에는 미관상 좋지 않은 혼중무더기 처리 방식이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파쇄방제 방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회원 산림소득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거나 무단이동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산림소득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벌채, 수집,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797-2423, 797-2884)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100원 시내버스 내년부터 중·고생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 부담

광양시는 기존의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100원 시내버스를 2019년 1월 1일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초등학생 시내버스 교통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역 등 온 가족이 함께 휴식과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며 보성여행을 적극 추천했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시행 후 교통카드를 집계하자 월 평균 500여 명 씩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음에 따라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했다.

현재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100원을 할인받아 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으로 100원 시내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900원이 할인된 100원만 결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광양에서 하동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구간요금이 적용되어 행선지를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 노선이 구간제 상관이 없이 100원이 적용되어 행선지를 알려 줄 필요 없이 교통카드만 찍으면 된다.

시는 이번 100원 시내버스 중·고등학생 확대가 교통카드 이용자 증가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줘 적자노선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함평군자원봉사센터, 전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자원봉사센터가 전남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 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된 데 이어 2번째다.

함평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자원봉사활동인원 증가율, 우수프로그램 선정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구 대비 매년 50시간 이

상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인원이 월등히 많아 이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함평=김광훈 기자

‘순천만 청정 친환경 미니리’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철새도래지 등 청정한 천혜의 환경이 키워낸 순천만 미니리가 도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50년 전통의 순천만 미니리는 순천을 대표하는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섬유질로 전국 최고로 소비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그 동안 재배단지에는 지하수 고갈과 기존지 이상의 염분검출로 친환경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순천시는 이시천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미니리 재배단지에 1일 2,000톤의 하천수를 공급해 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미니

리 친환경 인증면적을 금년 5.7ha를 시작으로 전농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순천만청정미니리 이시천 작목반장은 “현재 미니리는 연간 3회정도 수확하고 길로당 6천원에 거래되고 있어 연간 40여억원의 소득을 올려, 도시농업의 효자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 미니리는 복숭아, 사과, 오리타 등 식당가가 많은 대구, 진주, 부산 등에서 인기가 많아 많이 찾고 있으며, 국민건강 식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맑은 물과 기름진 토양, 풍부한 햇빛 등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순천만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미니리 재배단지를 육성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황경석 기자

(재)순천문화재단, 임원 공개 모집

순천시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을 2019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다시 공개 모집한다.

이번 임원 재모집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의 심사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후 모집공고토록 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다.

임원의 심사 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결과 고득점 순

으로 2배수이상 추천하고 이사로 선임된 사람(13명) 중에서 상임이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2배수이상 추천하게 된다.

공개 모집하는 임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13명과 감사 1명으로 총 14명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이사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의 경우 재단

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사 응모자격은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이며 감사는 회계 및 감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방법은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8일(화) 18시까지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